

가속주의(다른 말로 '축진주의')적 정치를 위한 선언

〇 〇

가속주의적 정치를 위한 선언

Manifesto for an Accelerationist Politics

—— 알렉스 윌리엄스(Alex Williams) & 닉 스르니체크(Nick Srnicek)

01. 서론: 현재의 국면에 관하여

1. 2010년대 초에 지구 문명은 새로운 유형의 격변에 직면해 있다. 다가오는 이런 종말적 사건들은 국민국가의 탄생, 자본주의의 흥기, 그리고 전례 없는 전쟁들의 이십 세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치의 규범과 조직적 구조들을 조롱한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 기후 체계의 붕괴다. 머지않아 이것은 현재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존재를 위협한다. 이것이 인류가 직면해 있는 위협들 가운데 가장 중대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정도는 덜하지만 잠재적으로 동등하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련의 문제들이 존재하며 그것과 교차한다. 구체할 길 없는 자원 고갈, 특히 물과 에너지 보존 자원의 고갈은 대량 기근, 경제적 패러다임들의 붕괴, 그리고 새로운 열전과 냉전들을 예고한다. 지속적인 금융 위기 때문에 정부들은 긴축, 사회복지 사업들의 민영화, 대량 실업, 그리고 임금 정체라는, 무력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악순환의 정책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생산 공정들—'지적 노동'을 비롯한—의 자동화 증가는 자본주의의 세속적 위기의 증거인데, 머지않아 북반구 국가들의 중간 계급들의 경우에도 현재의 생활 기준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3. 항상 가속하는 이런 파국적 사건들과 대조적으로 오늘날의 정치는 다가오는 소멸들에 맞서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들을 변형시키는 데 필요한 새로운 관념들과 조직 양태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능력에 갇혀 있다. 위기는 힘과 속도를 모으고 있는 반면에 정치는 쇠퇴하고 후퇴하고 있다. 정치적 상상이 마비된 상태에서 미래는 소거되어 버렸다.
4. 1979년 이래로 주도적인 전지구적 정치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였는데, 경제 선진국들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발견된다. 새로운 전지구적 문제들이 신자유주의에 제기하는 심층적인 구조적 도전—가장 가까이 2007-8년 이후의 신용 위기, 금융 위기, 그리고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들은 심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했을 뿐이다. 신자유주의적 기획의 이런 지속, 또는 신자유주의의 2.0은 또 한 차례의 구조 조정 정책들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사민주의적 제도와 서비스들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것에 대한 민간 부문의 새로운 공격적인 침투 형식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그런 정책들의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와 새로운 전지구적 위기들에 의해 제기되는 장기적인 근본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다.
5. 우익 정부 권력, 비정부 권력, 그리고 기업 권력 세력들이 신자유주의화로 밀어붙일 수 있었던 점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좌파와 관련하여 남아 있는 것 대부분의 지속적인 마비와 무력한 특질에서 비롯되었다. 삼십 년에 걸쳐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동안 대부분의 좌파 정당들은 급진적 사상을 잃어버리고, 공허해져 버렸으며, 인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전후 사민주주의의 발생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좌파 정당들은 케인즈적 경제로의 복귀에 대한 요청으로 우리의 현재 위기들에 대해 대응했다. 우리는 명령에 의해 산업적인 포드주의적 대량 노동으로 결코 복귀할 수 없다. 현대 자본주의의 독단들에 저항할 수 있는 그것들의 능력에 고무되는 반면에, 남아메리카의 볼리비아식 혁명의 신사회주의적 체제들조차도 실망스럽게도 여전히 이십 세기 중반의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기획에서 만들어진 변화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조직화된 노동은 제도적 층위에서 경화증에 걸려 있고, 기껏해야 새로운 구조 조정 정책들을 미약하게 완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새로운 경제의 건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이나 그런 변화들을 헤쳐 나가기 위한 구조적 연대가 부재한 채로 당분간 노동은 여전히 비교적 무력한 상태다. 2008년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냉전이 끝난 이래로 출현했던 새로운 사회 운동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적 전망을 고안할 수 없었다. 그 대신에 그것들은 전략적 유효성에 우선하여 내부의 직접민주주의적 과정과 정동적인 자기 평가에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그리고 공동체적 즉시성의 박약하고 덧없는 "진정성"으로 세계화된 자본의 추상적 폭력에 반대하는 것처럼 신원시주의적 지역주의의 한 변양태를 주창하곤 한다.
6. 본원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주도적인 우파 세력들은 무엇이든 모든 증거에 맞서서 자신들의 협소한 사고방식의 상상을 계속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껏해야 좌파는 잠깐 동안 최악의 습격들 가운데 몇 가지에 부분적으로 저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조류에 맞서는 호언가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전지구적 좌파 헤게모니를 생성하는 것은 상실한 가능한 미래들의 복구와 사실상 미래 자체의 복구를 수반한다.

02. 공백기: 가속주의들에 관하여

1. 가속에 관한 관념들과 관련된 체계라면 무엇이든 그것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의 필수 대사작용은 경제 성장을 필요로 하는데,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에서 각기 다른 자본주의적 존재자들 사이의 경쟁이 기술 발달의 증가를 진행시킨다.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형식에서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자기 표현은 창조적 파괴의 힘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항상 가속하는 기술적 및 사회적 혁신들을 해방하는 것의 표현이다.
2. 철학자 닉 랜드(Nick Land)는 자본주의적 속도만이 전대미문의 기술적 특이점을 향한 전지구적 전환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시안적이지만 매혹적인 믿음을 품은 채 이것을 가장 예민하게 포착했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전망에 따르면, 인간적인 것은 이전 문명들의 브리콜라주된 파편들로부터 빠르게 구성되는 추상적인 전지구적 지능에 대한 단순한 장애물로서 결국 폐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랜드적 신자유주의는 속도를 가속도와 혼동한다. 우리는 빨리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코 자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엄격하게 규정된 일단의 자본주의적 매개변수들 내에서만 그렇다. 우리는 국소적 지평의 속도 증가, 즉 탐색적이기도 하는 가속, 보편적인 가능성의 공간 내에서 실험적 발견 과정이 아니라 단순한 우둔한 돌진을 경험할 뿐이다.
3. 훨씬 더 나쁘게도, 들뢰즈와 가타리가 인식했듯이, 자본주의적 속도가 한 손으로 탈영토화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것은 다른 한 손으로 재영토화한다. 진보는 잉여 가치, 노동 예비군, 그리고 부동하는 자본의 틀 내에 구속된다. 근대성은 경제 성장의 통계적 척도들로 환원되고 사회적 혁신은 우리의 공동 과거로부터의 키치적 유물들로 장식된다. 대처-레이건식 탈규제는 빅토리아 시대의 '기본으로 되돌아가는' 가족적 및 종교적 가치들과 함께 편안하게 동식한다.

4. 신자유주의 내의 더 심층적인 긴장은, 그것이 구성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미래를 약속하는 한편, 문자 그대로 근대화와 동의어처럼 여겨지는, 근대성의 매개물로서의 자화상의 측면에 있다. 사실상, 신자유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그것은 개별적 창의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 공급 고리들과 동양의 신포드주의적 생산 영역과 결합된, 대본이 있는 상호작용들의 정동적 생산라인을 위해 인지적 발명성의 제거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었다. 엘리트 지적 노동자들의 매우 작은 유식계급(cognitariat)은 해마다 축소되며, 그리고 알고리즘적 자동화 바람이 감정 노동과 지적 노동의 권역들로 불어닥침에 따라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다. 자체를 필연적인 역사적 전개로 상정하지만, 사실상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에 출현했던 가치의 위기를 물리치기 위한 우연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불가피하게도 이것은 위기의 극복이 아니라 위기의 승화였다.

5. 랜드와 더불어, 여전히 모범적인 가속주의적 사상가는 마르크스다. 너무나 익숙한 비판, 그리고 심지어 현대의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행동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마르크스 자신은 자신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변형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있어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선진적인 이론적 도구들과 경험적 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근대성에 저항했던 사상가가 아니라, 오히려 착취와 부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여전히 가장 선진적인 경제 체계라는 점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분석하고 개입하려고 노력했다. 자본주의의 진전은 역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을 넘어 자본주의적 가치 형식을 가속화해야 한다.

6. 실제로 1918년 텍스트 <<"좌익"의 유치함("Left Wing" Childishness)>>에서 레닌도 이렇게 적었다.

"현대 과학의 최신 발견들에 바탕을 둔 대규모의 자본주의적 공업이 없다면 사회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수천 만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계속해서 엄격히 준수하게 만드는 계획된 국가 조직이 없다면 사회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항상 이것에 관해 말해 왔고,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아나키스트들과 죽히 절반에 이르는 좌파 사회주의 혁명가들)에게 말하느라고 이 초도 낭비할 가치가 없다."

7. 마르크스가 깨달았듯이, 자본주의는 진정한 가속의 행위자로 규정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기술사회적 가속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좌파 정치에 대한 평가도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심각한 허위진술이다. 사실상, 정치적 좌파에게 미래가 있을 수 있으려면, 그것은 이런 억압된 가속주의적 경향을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03. 선언: 미래에 관하여

1. 오늘날 좌파의 가장 중요한 분열은 국소주의, 직접 행동, 그리고 끊임없는 수평주의라는 통속 정치를 견지하는 사람들과 추상화, 복잡성, 전체성, 그리고 기술이라는 근대성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는 *가속주의적 정치*라고 틀림없이 부르게 될 것을 개진하는 사람들 사이의 분열이다. 전자는 비자본주의적인 사회적 관계들의 작은 임시 공간들을 확립하는 데 여전히 만족하며, 본질적으로 비국소적이고, 추상적이며, 우리의 일상 하부구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적들을 대면할 때 수반되는 진짜 문제들은 회피한다. 그런 정치의 실패는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었다. 반면에, 가속주의적 정치는 후기 자본주의의 진전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의 가치 체계, 통치 구조들, 그리고 집단 병리들이 허용할 것 이상으로 진전시킨다.

2. 우리 모두는 덜 일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전후 시대의 세계를 선도한 경제학자가 계몽된 자본주의는 불가피하게 노동 시간의 급진적인 감소를 향해 진전한다고 믿었던 이유에 대한 흥미로운 의문이다. <<우리 손자들을 위한 경제적 전망(The Economic Prospects for Our Grandchildren)>>(1930년에 저술된)에서 케인즈는 개인들의 노동 시간이 하루 세 시간으로 줄어들 자본주의적 미래를 예언했다. 그 대신에 일어난 일은 노동과 삶에 대한 구분의 점진적인 제거인데, 일이 신흥 사회적 공장의 모든 측면에 침투하고 있다.

3. 자본주의는 기술의 생산력들을 제약하거나, 또는 그것들이 최소한 불필요하게 협소한 목적들을 지향하도록 지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전쟁과 아이디어 독점화는 경쟁을 넘어서 자원의 필요성과 기술에 대한 자본의 점점 심화되는 퇴행적 접근방식 둘 다를 가리키는 현대적 현상이다. 신자유주의의 철저히 가속적인 진전은 노동의 감소나 스트레스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여행, 미래 충격, 그리고 혁명적인 기술적 가능성의 세상이 아니라, 발전하는 유일한 것은 조금 더 좋은 소비 제품인 시대에 살고 있다. 동일한 기본적 생산품의 끊임없는 반복이 인간의 가속을 희생하는 댓가로 미미한 소비 수요를 유지한다.

4. 우리는 포드주의로의 귀환을 바라지 않는다. 포드주의로의 귀환은 전혀 있을 수 없다.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는, (남성) 노동자들이 바보같이 만드는 지루함과 사회적 억압의 삶에 대한 댓가로 사회 보장과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제공받는, 질서정연한 공장 환경이라는 생산 패러다임을 전제로 했다. 그런 체계는 식민지, 제국, 그리고 미개발 주변부라는 국제적 위계,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의 국내적 위계, 그리고 여성 복속의 견고한 가족적 위계에 의존했다. 많은 사람들이 느낄지도 모르는 향수에도 불구하고 이 체계는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이 체계로 귀환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5. 가속주의자들은 잠재적인 생산력들을 풀어놓기를 바란다. 이 기획에서 신자유주의의 물질적 플랫폼은 파괴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공동 목적을 지향하도록 *재정향*될 필요가 있다. 현존하는 하부구조는 분쇄되어야 할 자본주의적 무대가 아니라, 탈자본주의를 향해 출범할 도약대다.

6. 자본주의적 목표들에 대한 기술과학의 예측(특히 1970년 말 이래로)을 고려하면, 우리는 현대의 기술사회적 조직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아직 확실히 알고 있지는 않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이미 개발된 기술에서 이용되지 않은 어떤 능력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완전히 알겠는가? 우리의 도박은 우리의 기술적 및 과학적 연구 대부분의 진정한 변형 능력들이 여전히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단편의 자본주의적 연합체를 넘어서는 전환 이후에는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쓸 데 없는 특징들(또는 전 적응적 성질들)로 가득차 있다는 점이다.

7. 우리는 기술적 진화 과정을 가속화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기술유토피아주의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기술이 충분할 것이라고는 결코 믿지 않는다.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회정치적 행동이 없다면 결코 충분하지 않다. 기술과 사회적인 것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둘 중 한 쪽의 변화는 다른 쪽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거나 강화한다. 기술유토피아주의자들은 가속화가 자동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것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가속화를 지지하는 논변을 펼치는 반면에, 우리 입장은 사회적 갈등을 *이겨내기* 위해 기술이 필요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술은 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8. 우리는 그 어떤 탈자본주의도 탈자본주의적 계획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믿는다. 혁명 후에 사람들이 결코 자본주의로의 복귀가 아닌 새로운 사회경제적 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성할 것이라는 생각에 놓여 있는 신념은 좋게 말해서 소박하고, 나쁘게 말해서 무지하다. 이것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현존하는 체계의 인지적 지도와 함께 미래의 경제적 체계에 대한 사변적 심상을 개발해야

한다.

9. 그렇게 하기 위해 좌파는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 가능해진 모든 기술적 및 과학적 진보를 이용해야 한다. 우리는 수량화가 제거되어야 할 악이 아니라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할 도구라고 선언한다. 경제적 모형 구성은, 간단히 말해서, 복잡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2008년 금융 위기는 신념에 근거하는 수학적 모형들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의 위험을 드러내지만, 이것은 수학 자체가 아니라 부당한 권위의 문제다. 사회적 연결망 분석, 행위자 기반 모델링, 빅데이터 분석학, 그리고 비평형 경제 모형들에서 발견될 수 있는 도구들은 현대 경제 같은 복잡한 체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인지적 매개물들이다. 가속주의적 좌파는 이런 전문 분야들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10. 사회의 그 어떤 전환도 경제적 및 사회적 실험을 포함해야 한다. 칠레의 프로젝트 사이버신(Project Cybersyn)이 이런 실험적 태도—정교한 경제적 모형 구성과 함께 선진 사이버네틱스 기술들을 기술적 하부구조 자체에서 예화된 민주주의적 플랫폼과 융합하는—의 상징이다. 비슷한 실험들이 1950-1960년대 소비에트 경제에서도 실행되었는데, 그것들은 최초의 공산주의 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들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사이버네틱스와 선형 프로그래밍을 채용했다. 이것들이 모두 궁극적으로 성공적이지 않았던 원인은 초기의 사이버네틱스 전문가들이 작업했던 정치적 및 기술적 제약에 귀속시킬 수 있다.

11. 좌파는 관념들의 영역과 물질적 플랫폼들의 영역 둘 다에서 사회기술적 체계모니를 발전시켜야 한다. 플랫폼들은 전지구적 사회의 하부구조다. 그것들은 행동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가능한 것들의 기본적인 매개변수들을 확립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들은 사회의 물질적으로 선행적인 것들을 구체화한다. 그것들은 특수한 행동 유형들을 물신화하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정치는 갈등, 적응과 반(反)적응, 그리고 전략적 무기 경쟁들로 분열된 일단의 역동적 체계들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편이 적응함에 따라 각각의 서로 다른 정치적 행동 유형은 점점 더 무디고 비효과적인 것이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전술들의 대상 세력과 존재자들이 효과적으로 그것들을 방어하고 반격하게 됨에 따라 익숙한 전술들을 폐기할 필요성이 점점 증가한다. 현대의 무기력의 핵심에 가까이 놓여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현대 좌파의 무능력이다.

12. 우리는 직접적인 행동이 이런 것을 성취하는 데 충분하다고 믿지 않는다. 행진하기, 표지판 들기, 그리고 일시적 자율 공간(temporary autonomous zone)을 구성하기라는 습관적인 전술들은 실질적인 성공에 대한 편안한 대체물들이 될 위험이 있다. "최소한 우리는 무언가를 했다"라는 말은 유효한 행동이 아니라 자긍심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구호다. 좋은 전술에 대한 유일한 기준은 그것이 유의미한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지 여부다. 우리는 특수한 행동 유형들을 물신화하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정치는 갈등, 적응과 반(反)적응, 그리고 전략적 무기 경쟁들로 분열된 일단의 역동적 체계들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편이 적응함에 따라 각각의 서로 다른 정치적 행동 유형은 점점 더 무디고 비효과적인 것이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전술들의 대상 세력과 존재자들이 효과적으로 그것들을 방어하고 반격하게 됨에 따라 익숙한 전술들을 폐기할 필요성이 점점 증가한다. 현대의 무기력의 핵심에 가까이 놓여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현대 좌파의 무능력이다.

13.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관념의 압도적인 특권화는 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급진적' 좌파 대부분에 의한 개방성, 수평성, 그리고 포괄성의 물신화는 무력함을 위한 무대를 세웠다. 비밀 엄수, 수직성, 그리고 배제도 효과적인 정치적 행동에서 나름의 자리(물론 배타적인 자리는 아닐지라도)가 있다.

14. 민주주의는 결코 자체 수단—선거, 토론, 또는 의회—에 의해 규정될 수 없다. 진짜 민주주의는 자체 목적—집단적인 자기 지배—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 세계(우리의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심리적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배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정치를 계몽주의의 유산과 동조시켜야 하는 기획이다. 전체적인 전체주의적 자본주의 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창발적 질서의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분산된 수평적 유형들의 사회성에 덧붙여 집단적으로 통제되는 합법적인 수직적 권위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계획의 명령이 연결망의 즉흥적인 질서와 결합되어야 한다.

15. 우리는 이런 벡터들을 구현하기 위한 이상적인 수단으로서 그 어떤 특수한 조직도 제시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항상 필요했던 것—은 비교 강점들에 공명하고 되먹임하는 조직들의 생태계, 세력들의 다원성이다. 분파주의는 중앙집중화만큼이나 좌파의 조종이며, 그리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상이한 전술들(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것들까지도)의 실험을 계속 환영한다.

16. 우리는 세 가지 구체적인 중기 목표들이 있다. 첫째, 우리는 지적인 하부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혁명의 몽 페를랭 소사이어터를 모방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쇠악해진 이상들을 대체하고 넘어서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경제적 및 사회적 모형들, 그리고 재화에 대한 전망을 만들어내는 과업이다. 이것은 관념들의 구성뿐 아니라, 그것들을 가르치고, 구체화하며, 확산시키는 제도와 물질적 경로들의 구성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에서 하부구조다.

17. 우리는 대규모의 매체 혁신을 이룰 필요가 있다. 인터넷과 사회적 매체에 의해 제공되는 명백한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매체 수단은 탐사 저널리즘을 수행할 자금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서사들의 선택과 틀 구성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매체들을 인민의 통제권에 가능한 한 가까이 접근시키는 것이 사물들의 상태에 대한 현재의 표현을 무화시키는 데 중요하다.

18.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급 권력의 다양한 형식들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재구성은 조직적으로 생성된 전지구적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이미 존재한다는 관념을 넘어서야 한다. 그 대신에 그것은, 흔히 탈포드주의적 불안한 노동 형식들에서 구체화되는, 분리된 일단의 부분적인 프롤레타리아적 정체성들을 함께 엮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19. 집단과 개인들은 이미 이것들 각각에 대해 작업 중에 있지만, 이것들 각각은 자체적으로 불충분하다. 요구되는 것은, 각각이 나머지 것들이 더욱 더 효과적으로 되는 방식으로 현대의 결합을 수정하도록 세 가지 모두를 서로 되먹임하는 것이다. 새로운 복잡한 체계모니, 새로운 탈자본주의적인 기술사회적 플랫폼을 생성하는 하부구조적,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및 경제적 전환의 양의 되먹임 고리. 역사는 그것이 항상 체계적인 변화를 초대하는 전술과 조직들의 폭넓은 조립체였다는 점을 예증한다. 이런 교훈들을 배워야 한다.

20. 가장 실체적인 층위에서 우리는, 이런 목표들 각각을 성취하기 위해 가속주의적 좌파는 효과적인 새로운 정치적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자금의 흐름들에 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리에 있는 조직체들의 '인민 권력'을 넘어서 우리는 정부, 기관, 싱크탱크, 노조, 또는 개인 후원자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런 자금 흐름들의 위치와 전도를 효과적인 가속주의적 좌파의 조직들의 생태계를 재구성하기 시작하는 데 본질적이라고 간주한다.

21. 우리는 사회와 그것의 환경에 대한 최대의 지배를 확보하는 프로메테우스적 정치만이 전지구적 문제들을 다룰 수 있거나, 또는 자본에 대한 승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이런 지배는 애초 계몽주의시대 사상가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면 매우 쉽게 지배되는 라플라스의 시계장치 우주는 오래 전에 진지한 과학적 이해의 의제에서 사라졌

다. 그런데 이것은, 지배를 선천적으로 부당한 것만큼이나 원과시증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이라고 비난하는 탈근대성의 피곤한 잔류물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 행성과 우리 종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문제들 때문에 새롭게 복잡한 모습으로 지배를 쇄신할 수밖에 없다고 제안한다. 우리는 우리 행동들의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가능한 결과의 범위는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복잡한 분석에 결합되어야 하는 것은 새로운 형식의 행동—행동 과정에서만, 지리사회학적 수완과 영리한 합리성의 정치 속에서만 발견되는 우연적인 것들로 작업하는 실천을 통해 설계를 시행할 수 있는 즉흥적인 행동—이다. 복잡한 세계 속에서 최선의 행동 수단을 추구하는 귀추적 실험 형식.

22. 우리는 탈자본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논변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는 부당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은 진보를 저지하는 체계다. 우리의 기술 발달은 자본주의에 의해 해방되었던 만큼이나 억제되고 있다. 가속주의는 이런 능력들이 자본주의적 사회에 부과된 제한을 넘어서게 됨으로써 해방될 수 있고 해방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믿음이다. 우리의 현재 제약의 극복을 지향하는 운동은 더 합리적인 전지구적 사회를 위한 투쟁 이상의 것을 포함해야 한다. 우리는 십구 세기 중엽부터 신자유주의 시대의 새벽까지 많은 사람들을 꿈쩍 못하게 한 꿈, 지구와 우리의 즉각적인 신체 형식들의 한계를 넘어서 팽창하고자 하는 호모 사피엔스의 탐색의 꿈을 회복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믿는다. 오늘날 이런 전망들은 더 순수한 시대의 유물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 시대의 상상력의 경이적인 결여를 진단하는 동시에 지적으로 활성화할 뿐 아니라 정동적으로 기분을 돋우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제시한다. 결국, 최소한의 기술적 개량의 세계를 넘어서 포괄적인 변화를 향해 움직이는 것은 가속주의적 정치—이십 세기 중반의 우주 계획들의 약속 어음을 이행할 수 있을—에 의해 가능해지는 탈자본주의적 사회일 뿐이다. 집단적 자기 지배의 시대와 귀결되고 가능해지는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미래를 향해. 자기 비판과 자기 지배라는 계몽주의적 기획의 제거가 아니라 그 기획의 완수를 향해.

23.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선택은 심각하다. 지구화된 탈자본주의냐, 아니면 원시주의, 영속적인 위기, 그리고 지구 생태계의 붕괴를 향한 느린 파편화냐.

24. 미래는 구성될 필요가 있다. 미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의해 파괴되어 더 큰 불평등, 갈등, 그리고 혼돈의 값싼 약속으로 전락했다. 미래라는 관념의 이런 붕괴는, 정치적 관점을 가로지르는 냉소주의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 듯이 회의적 성숙함의 신호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퇴행적인 역사적 지위의 증상이다. 가속주의가 추진하는 것은 *더 근대적인 미래*—신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생성할 수 없는 대안적인 근대성—다. 미래는 다시 한 번 열려야 하며, 우리의 지평을 외부의 보편적 가능성들을 향해 열어 놓아야 한다.

출처: <http://blog.daum.net/nanomat/520>